

□ 완산동

* 완산동

완산동은 남천강변에 형성된 마을이다. 동쪽은 금강산이 있고 서쪽은 멀리 주남평야가 금호강 연변까지 이어져 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역시 주남평야가 펼쳐져 금노동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남천을 사이에 두고 문외동과 문내동이 접하고 있다. 남천연안은 오래전부터 과수지대로 이름이 있으며 금강산성이 있어 이지역의 문화적 핵심이 되는 동네다. 또한 이 마을은 영천문화의 중추적 지역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영천은 골별국이라는 부족국가가 있었는데 서기236년에 신라에 투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초에 황보능문이 금강성을 방어하였다는 내용을 보아 오랜 역사를 지녔음이 입증된다.

이곳에는 여러개의 고분이 군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완산동은 안완산, 바깥완산, 개고개, 말죽거리등의 자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완산은 금강산 바로 밑에 형성된 자연부락이고 그 외 지역은 통칭하여 바깥완산이라고 한다. 후에 행정명칭이 부여되면서 안완산은 완산면 내동, 바깥완산은 외동으로 명명되어 왔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때 완산면이 폐지되고 영천면에 속하면서 완산동이 되었다. 1981년에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군부의 읍면에 준하는 완산동이 된 것이다